

# 미-이란戰 변수 속 반도체주 20% ↓... “AI 수요는 여전”

삼성·하닉 고점 대비 20% 안팎 급락 AI 메모리 수요 확대... 목표주가 상향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

“5만 전자에 샀다가 10만 전자에 매도 해서 아쉬워서 다시 샀는데 이렇게 또 물릴 줄 몰랐다. 이번 전쟁이 얼마나 이어질지 몰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평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인지 알 길이 없다.” 회사원 강모(42세)씨는 연일 떨어지는 주가에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중동 군사충돌 여파로 국내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하면서 개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는 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단기 조정일 뿐 메모리 업황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하락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전일 대비 11.74% 내린 17만 2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7일 증가(미



ChatGPT로 생성한 미국-이란 전쟁으로 급락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급락 그래프.

국-이란 전쟁 전) 대비 20.46% 떨어졌고, 최고가 22만3000원 대비로는 22.78% 하락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에 매수세가 몰렸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이를 압도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역시 곤두

박질 쳤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전 날보다 9.58% 내린 84만900원까지 추락했다. 27일 증가 106만1000원에서 19.98% 빠졌으며, 최고가 111만2000원 대비 23.65% 하락했다.

증권가는 이번 하락을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기술적

조정으로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보다 더 빠르게 회복한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자금 투입을 예고한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0.8% 증가한 25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오히려 실적 전망을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높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유악 키움증권의 연구원은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NAND 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

익은 170조원, 매출은 23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가 21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했다. 박 연구원은 “AI 용 메모리 수요가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HBM4 양산 확대와 eSSD 경쟁력 회복, 비메모리 흑자 전환 모멘텀이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지정학적 변수보다 AI 반도체 수요와 메모리 가격 사이클에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오히려 주가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 내놓는 증권사도 나왔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무력 충돌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며 “메모리 업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 ETF 10조 넘긴 한화운용 “100조 목표”

1년 7개월 만에 순자산 약 3배 성장 24일 ‘PLUS K제조업’ ETF 상장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겠다.”

김종호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가 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PLUS ETF 순자산총액 10조원 돌파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100조원 운용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ETF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간접투자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PLUS ETF는 기술과 금융을 결합해 더 정교하고 더 편리한 투자솔루션을 제공하며, 다가오는 고품질 시대에 투자자들의 든든한 연금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024년 7월 ETF 브랜드를 PLUS로 개편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브랜드 출범 당시 3조원대 중반 수준이던 순자산은 약 1년 7개월 만에 약 3배 가량 성장했다.

PLUS ETF는 고객의 수요에 맞춰 PLUS 고배당주(2.6조원), PLUS K방산(1.9조원), PLUS 200(1.6조원) 등 3(%) 단위 ETF를 잇따라 배출했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CMO는 “3년 뒤, PLUS ETF는 순자산 100조원, 업계 ‘TOP3’ ETF 운용사로 발돋움하겠다”며 “미국에 ‘K방산 ETF’를 안착시킨 성공 스토리를 발판 삼아,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유럽, 아부다비,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로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오는 24일 ‘PLUS

K제조업핵심기업액티브’ ETF 상장을 앞두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이 ETF의 운용 전략을 적용한 ‘K제조업 ETF’를 ETC사와 협업해 미국 시장에도 상장할 예정이다. 앞서 ‘PLUS K방산’의 운용 전략을 적용해 미국에 상장한 ‘美 K방산 ETF’와 유사한 형태다.

‘PLUS K제조업핵심기업액티브’ ETF는 미중 패권전쟁 속 미국의 제조업 파트너로서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한국의 제조업에 주목한 상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와 같은 2차전지 기업,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과 같은 조선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방산 기업, 그 외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 에너지·광물, 바이오 기업들이 편입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IPO 시장, 공모가 거품 빠지고 장기투자 ↑

금감원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공모가 산정 방식

지난해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공모가 거품이 완화되고 장기 투자 관행이 확대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IPO 시장, 무엇이 달라졌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상장 기업은 76개사로 전년(77개사)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연간 공모금액은 4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가 2조2000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69개사가 2조3000억원을 조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연초 초대형 IPO였던 LG CNS 영향으로 공모금액이 전년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상장건수와 공모금액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모 규모별로 보면 공모금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IPO가

62건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동시에 1조원 이상 초대형 IPO 1건과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대형 IPO 6건이 성사되며 1000억원 이상 대형 IPO도 늘었다.

지난해 IPO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공모가 산정 방식이다. 모든 상장 기업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밴드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밴드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에는 기관투자자의 공격적인 가격 제시로 공모가가 밴드를 초과한 사례가 전체 IPO의 66%에 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도 확대됐다. 기관 배정 물량 가운데 의무보유율 비율은 41%로 전년(18.1%)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일반 투자자의 IPO 참여도 크게 증가한 부분이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06대1로 IPO 호황기였던 2021년(1136대1)에 근접했다.

/허정윤 기자

## “사고 직후 렌터카 이용, 성급하면 손해”

### 금감원 Q&A

사고 과실 따라 피해자도 비용 발생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이 전액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렌터카나 견인차를 이용했다가, 사고 처리 이후 피해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사고 직후 성급한 판단으로 또 다른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에서 즉시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사설 견인업체나 렌트업체가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특정 렌터카 이용을 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고 과실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C씨는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렌터카를 이용했지만, 이후 쌍방과실로 확정되면서 본인 과실 비율만큼의 렌트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됐습니다. 견인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력 이동이 가능했던 차량을 견인한 경우, 보험회사 견인비 보상을 거부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ChatGPT로 생성한 자동차 사고 후 렌트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에 고민하는 차주

사고 유형에 따라 아예 렌트비용이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몰랐다가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차 단독사고나 구조물 충격 사고 역시 렌트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한 경우에도 렌트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허정윤 기자

## “토권증권 제도화 속도”... 민관 협의체 출범

금융위, 제도·인프라 설계 논의

금융당국이 내년 2월 토권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제도 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체계 등 디지털 자본시장 환경 구축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토권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제도·인프라 세부 설계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

관기관과 금융투자협회·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 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협의체는 기술·발행·유통·결제 등 4개 분야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상시 운영된다. 기술·인프라 분과는 분산원장 기술 요건과 기존 증권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발행 분과는 증권신고서 서식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논의한다. 유통 분과는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와 거래 한도 설정을, 결제 분과는 스테이블코인 연계 등 미래 결제 시스템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